

주택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 차별성 분석

: 주택관리공단의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Discrimination of the Information Usage Pattern by Pyeong-type Tenants:
Focused on Tenants between Kohom's Permanent and Temporary Public Rental Housing

고종문²⁾, 김신표³⁾
Jong Moon Ko, Shin Pyo Kim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discrimination of the information usage pattern between tenants of permanent and temporary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Moreover, we focus to examine on that matters between two groups, 7~12 pyeongs and 11~24 pyeongs that indicate permanent and temporary public rental housing respectively. The results derived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exist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using computer, internet,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on the other hand, insignificance in using satellite communication and telephone between them.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s shows that as widen income gap, also widen gaps in using computer and internet between them. Thus government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should focus to make narrow income gap to diminish information gap between those groups.

Key Words : Public rental housing, Permanent Rental Housing, Information Usage Pattern,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formation Gap

목 차

- | | |
|-----------------------------------------|------------------------------|
| I. 서론 | 3. 조사 설계 |
| II.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관리 현황 | 4. 모형의 설정 |
| 1. 영구임대주택 현황 및 향후 계획 | 5. 연구 가설의 설정 |
| 2. 국민임대주택 현황 및 향후 계획 | IV.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패턴 분석 |
| III.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 1. 정보화 이용패턴의 차별성 검정 |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2. 정보화 이용 패턴 검정 결과 |
| 2. 조사의 내용 | 3. 정책 대안 |
| | V. 요약 및 제언 |

1) Korea Housing Management Company의 약자임. 2) 경제학박사(Ph.D), 주택관리공단사장. 3) 경제학박사(Ph.D), 한국IT렌탈산업협회 본부장

I. 서론

주택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요 “삶의 그릇”이라고 한다. 또한 주택은 의(衣), 식(食)과 더불어 인간 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⁴⁾

주택은 일생동안 구매하는 물품 중에 가장 비싼 것이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노동 재생산의 장소이며, 개인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고용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매우 높고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도시 시설물 가운데 매우 큰 부분을 점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다.⁵⁾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및 산업화와 더불어 1980년대 말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경험했다.⁶⁾

이에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주택의 소유자와 무소유자간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시장경제의 왜곡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⁷⁾

뿐만 아니라 오늘날 디지털경제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IT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⁸⁾

우리나라는 초고속망 가입자 수가 1998년에 1만 4천 가구에서 2002년에는 1,04만 가구에 이어 2006년에 1,404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1995년에 37만명에서 2002년에는 2,627만 명에 이어 2005년에 3,301만 명으로 급속한 속도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⁹⁾

이러한 급속한 정보화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저학력 계층보다는 고학력 계층, 영세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농촌지역, 저학력 계층, 중소기업들은 IT에 대한 전문적인 개념과 IT기술을 활용할만한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소유 문제와 계층별 IT활용에 대한 개념적 배경 하에 주택 소유 평형별도 일부 거주자들이 정보화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밝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주택 평형별 정보화의 패턴에 차이가 있다면 국민들의 정보이용에 있어서도 양극화 내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이용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주택건설시 가구내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저평형 거주자 정보화 이용 지원 방안 등을 통해 정보화시대 정보이용의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대안 마련까지 이루어져만 할 것이다.

이상에서 연구는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의 차별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나아가서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이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껍을 좁힐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주택관리공단의 전용면적 11~24평형인 국민임대주택 12만호와 7~12평형인 영구임대주택 약 19만호를 대상으로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II.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관리 현황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1998년 11월에 창립되어 현재 2,300여 명 임직원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4) 이동성, “특집 : 주택의 미래-미래주택의 모습들 : 우리나라 주택의 현재와 미래”, 0703건축, 1997.3, 12면 참조. 5) 이동성, “특집 : 주택의 미래-미래주택의 모습들 : 우리나라 주택의 현재와 미래”, 0703건축, 1997.3, 12면 참조. 6) 박용환, “주택공급관리의 주택정책적 접근”, 주택연구 제12권 2호, 2004. 7) 김신표, 고종문, “지역별 주택가격 결정요인분석을 통한 정책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 57~73면, 참조. 8) 김신표, 이춘열, “ASP 산업의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2005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5, 509~522, 참조. 9)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 백서, 2006. 참조

만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전국 300여 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 25만여 세대의 입주고객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설립 배경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분리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정부재투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관리 전문회사로 주택관리는 물론 리모델링(유지보수) 기술축적 및 보급으로 국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선도하고 있다.

1. 영구임대주택 현황 및 향후 계획

영구임대주택 건설 추진 배경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성장정책에 주력함으로써 주택의 보급 및 관리 등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과 재정투자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2월 24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식 “보통사람들의 밤” 행사에서 25만호의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급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1989년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 단지로서 지원내용은 1989~1993년간 정부·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보조하여 전용면적 7~12평 규모로 19만호를 건설하였다.

〈표 2-1〉 영구임대주택 공급 현황

단위 : 1,000호

구분	계	1989	1990	1991	1992
계	190	43.5	60	51.5	35
지자체	50	13.5	19.2	17.3	-
주공	140	30	40.8	34.2	35

※ 변경계획 : 당초 25만호 → 19만호로 변경('91.12)

영구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 영구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현황

사업주체	공급	공단 관리
계	190천호	140천호
지자체	50	-
주공	140	140

입주 자격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군 위안부
-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주택은 1995년까지 공급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공급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되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30% 정도가 입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탈락자가 계속거주하고 있음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몇 년씩 대기해도 입주 순서가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임대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영구임대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입주를 못하는 실정으므로 영구임대 주택 건설 추진도 고려되거나 아니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국민임대주택 현황 및 향후 계획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 배경은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1998년부터 재정지원(10~40%)하

에 전용면적 11~24평으로 건설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2003~2012년간 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현황(2007.4기준)

사업주체별	입주	사업승인	공단관리
계	118,035	476,161	39,808
주공	103,831	436,181	39,808
지자체	14,204	39,980	-

※ 주공에서 민간 관리업체 관리위탁 : 64,023호

입주 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다음의 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이나 2007년 4월 기준으로 사업승인은 47만호이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정책사업으로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의하여 유동적일 수 있으나 택지부족, 지자체에서 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현재 사업승인 지구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은 미임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임대 주택 선호를 위해서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하, 입주자격 범위 확대, 민간 건설업체 건설 유인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소득금액	순 위
50㎡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	제1순위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 및 사업주체가 인정한 인근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0㎡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60㎡이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이하인 자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 : 3,443,399원

Ⅲ.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1. 조사 배경 및 목적

이 조사의 배경은 소득계층별, 도농 간 지역별, 학력별,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평형별로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으로 조사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조사의 목표는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의 차별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정보화 이용 현황을 설문조사 하는데 있다.

2. 조사의 내용

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 ◎ 컴퓨터 이용 부문
 - PC 보유 대수
 - 노트북 보유 대수
 - 컴퓨터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 수

10) 조사내용 설문지는 〈부록1〉을 참조할 수 있다.

◎ 인터넷 이용 부문

-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여부
- 인터넷 이용 가구원 수
-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

◎ 통신 부문

- 전화 가입 대수
-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

◎ 방송 부문

- TV 보유 대수
- 위성방송 가입 여부
- CA TV 가입 여부

3.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모집단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 모집단은 주택관리공단의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각각 19만 및 12만 가구를 모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표본 크기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 분석을 위한 표본 조사 수는 (3-1)식과 같이 신뢰 수준 95%수준에서 허용오차 ±4.4%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 표본 500개 가구로 설정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e &= \pm(Z_{\alpha/2}) \times \text{SQRT}(P(1-P))/n \\
 &= \pm 1.96 \times \text{SQRT}(0.25/n) \cdot (1-n/N) \\
 &= \pm 1.96 \times \text{SQRT}(0.25/500) \cdot (1-500/310,000) \\
 &= \pm 0.0437(4.37\%) \quad (3-1)
 \end{aligned}$$

n : 표본 수 N : 모집단 수 e : 허용오차

3) 표본 설계 방법

기본적인 표본설계 방법은 주택관리공단의 국민임대

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31만 가구 리스트를 활용한 계통 추출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 방식은 전화를 통한 조사 대상자 확인 후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 조사가구의 특성

조사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1〉 조사 가구의 특성

단위 : 가구, %

구분	표본 수	비중(%)	
	전체	500	100.0%
주택 평형	7~12평(소형)	229	45.8%
	11~24평(중형)	271	54.2%

5) 조사 기간

주택관리공단의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500가구 표본조사 기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 되었다.

〈표 3-2〉 조사 기간

구분	일정
조사 기획	2007년 4월 15일 - 2007년 4월 25일
설문조사	2007년 4월 26일 - 2007년 5월 10일
조사결과 집계	2007년 5월 11일 - 2007년 5월 15일
집계결과 분석	2007년 5월 14일 - 2007년 5월 20일

6) 자료의 처리

조사결과 분석방법은 SPSS를 활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각종 검정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4. 모형의 설정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각종 정보화 이용 패턴 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의 핵심은 종속변수와 요인변수의 구분이다.

먼저 요인변수는 중형평수인 국민임대주택과 소형 평수인 영구임대주택의 주택 평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소득 분배의 도농 간 양극화, 학력별 양극화, 기업 규모별 양극화, 소득계층별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보화 이용에서도 소형과 중형평수 간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 정도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주택 평형별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 종속변수는 정보화 이용 패턴을 결정하는 속성들로서 컴퓨터 보유대수, 노트북 보유대수, 초고속망 접속 여부, 휴대폰 이용료, 위성방송 이용료 등의 변수들로 설정하고자 한다. 결국, 주택 평형별로 거주자들의 각종 정보화 이용 수단별 이용 빈도의 차별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과학적으로 검정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설명된 변수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5. 연구 가설의 설정

1) 가설의 설정

앞서 설정된 모형을 토대로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 가설 검정 요인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정보화백서에 나타난 국가정보화지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¹¹⁾

(1) 컴퓨터 부문 가설

Ho :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컴퓨터 이용 패턴(PC 보유 대수, 노트북 보유 대수, 컴퓨터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 수)에 차이가 없다.

H1 :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컴퓨터 이용 패턴(PC 보유 대수, 노트북 보유 대수, 컴퓨터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 수)에 차이가 있다.

(2) 인터넷 부문 가설

Ho :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초고속인터넷 가입여부, 인터넷이용가구원 수,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에 차이가 없다.

H1 :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초고속인터넷 가입여부, 인터넷이용가구원 수,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에 차이가 있다.

(3) 통신 부문 가설

Ho :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통신 이용 패턴(전화 가입 대수,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에 차이가 없다.

H1 :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통신 이용 패턴(전화 가입 대수,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에 차이가 있다.

(4) 방송 부문 가설

Ho :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방송 이용 패턴(TV보유 대수, 위성방송 가입 여부, CATV가입 여부)에 차이가 없다.

H1 :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방송 이용 패턴(TV보유 대수, 위성방송 가입 여부, CATV가입 여부)에 차이가 있다.

2) 가설검정 방법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각종 정보화 이용 패턴에 관한 연구가설의 검정은 t-검증을 통해 판별하고자 한다.

IV.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패턴 분석

이 장에서는 부록에서와 같이 정규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11)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2006. 참조

영구임대주택 500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소형인 영구임대주택과 중형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각종 정보화 수단 이용 현황을 t-검정을 통해 정보화 이용 패턴의 차별성 여부를 검증 하고자 한다.

1. 정보화 이용패턴의 차별성 검증

1) 컴퓨터 부문 가설 검증

컴퓨터 부문은 (1) PC, (2) 노트북, (3) PC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 수로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의 차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 PC 대수

PC대수에서 7~12평인 소형 평수는 평균 0.6376대(표준편차 0.5083)를 보유하고 있으며, 11~24평인 중형 평수는 평균 0.8930대(표준편차 0.41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PC 이용 패턴 차별성을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주택 평형별 PC 대수 이용 패턴 차별성 검증

PC 대수	Levene의 등분산 검증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가정	88.428	.000	-6.203	498	.000
이분산 가정			-6.096	437.717	.000

동분산 검증 결과 $p=0.000 < \alpha=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산 가정에 따라 t값 -6.096 에 자유도 437.717에서 $p=0.000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소형 평수와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PC 보유 패턴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2) 노트북 대수

노트북 대수에서 7~12평인 소형 평수는 평균 0.0262대(표준편차 0.1601)를 보유하고 있으며, 11~24평인 중

형 평수는 평균 0.1144대(표준편차 0.330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노트북 이용 패턴 차별성을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 주택 평형별 노트북 대수 이용 패턴 차별성 검증

노트북 대수	Levene의 등분산 검증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가정	61.16	.000	-3.691	498	.000
이분산 가정			-3.888	404.010	.000

등분산 검증 결과 $p=0.000 < \alpha=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산 가정에 따라 t값 -3.888 에 자유도 404.010에서 $p=0.000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소형 평수와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노트북 보유 패턴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3) PC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 수

PC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 수에서 7~12평인 소형 평수는 평균 1.0175명(표준편차 1.0800)을 보유하고 있으며, 11~24평인 중형 평수는 평균 2.0480명(표준편차 1.8761)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PC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 수 차별성을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 주택 평형별 PC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 수 패턴 차별성 검증

PC 및 노트북이용자	Levene의 등분산 검증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가정	11.03	.001	-7.346	498	.000
이분산 가정			7.664	442.663	.000

동분산 검증 결과 $p=0.001 < \alpha=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산 가정에 따라

t값 -7.664에 자유도 442.663에서 $p = 0.000 < \alpha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7~12평인 소형 평수와 11~24평인 인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PC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 수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2) 인터넷부문 가설 검정

인터넷 부문은 (1)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여부, (2) 인터넷 이용 가구원 수, (3)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로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의 차별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1)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여부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여부에서 7~12평인 소형 평수는 평균 1.4498대(표준편차 0.4986)를 보유하고 있으며, 11~24평인 중형 평수는 평균 1.1476대(표준편차 0.355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여부 패턴 차별성을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주택 평형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여부 패턴 차별성 검정

인터넷 가입자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가정	209.02	.000	7.886	498	.000
이분산 가정			7.672	403.056	.000

등분산 검정 결과 $p = 0.000 < \alpha = 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산 가정에 따라 t값 7.672에 자유도 403.056에서 $p = 0.000 < \alpha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7~12평인 소형 평수와 11~24평인인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여부 패턴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2) 인터넷 이용 가구원 수

인터넷 이용 가구원 수에서 7~12평인 소형 평수는 평균 1.0131명(표준편차 1.0616)이 이용하고 있으며, 11~24평인 중형 평수는 평균 1.9852명(표준편차 1.3443)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인터넷 이용 가구원 수 패턴 차별성을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5〉 주택 평형별 인터넷 이용 가구원 수 패턴 차별성 검정

인터넷 이용자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가정	11.26	.001	-8.855	498	.000
이분산 가정			-9.030	495.798	.000

등분산 검정 결과 $p = 0.000 < \alpha = 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산 가정에 따라 t값 -9.030에 자유도 495.798에서 $p = 0.000 < \alpha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7~12평인 소형 평수와 11~24평인인 중형 평수 인터넷 이용 가구원 수 패턴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3)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에서 7~12평인 소형 평수는 평균 0.8603명(표준편차 0.9990)를 보유하고 있으며, 11~24평인 중형 평수는 평균 1.6199명(표준편차 1.1954)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 차별성을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주택 평형별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

이메일 이용자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가정	7.48	.006	-7.626	498	.000
이분산 가정			-7.741	497.942	.000

동분산 검정 결과 $p=0.001 < \alpha=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산 가정에 따라 t 값 -7.741 에 자유도 497.942 에서 $p=0.000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7~12명인 소형 평수와 11~24명인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3) 통신 부문 가설 검정

통신 부문은 (1) 전화 보유 대수, (2)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3)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으로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의 차별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1) 전화 보유 대수

전화 보유 대수에서 7~12명인 소형 평수는 평균 0.8777대(표준편차 0.4005)를 보유하고 있으며, 11~24명인 중형 평수는 평균 0.9520대(표준편차 0.538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전화 보유 대수 패턴 차별성을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7〉 주택 평형별 전화 보유 대수 패턴 차별성 검정

전화 대수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가정	0.04	.848	-1.723	498	.0855
이분산 가정			-1.765	490.302	.0782

동분산 검정 결과 $p=0.085 > \alpha=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수락하고, 대립가설 H_1 을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동분산 가정에 따라 t 값 -1.723 에 자유도 498 에서 $p=0.0855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수락하고, 대립가설 H_1 을 기각하고 있다. 즉, 7~12명인 소형 평수와 11~24명인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전화 보유 대수 패턴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에서 7~12명인 소형 평수는 평균 1.4236명(표준편차 0.9776)이 이용하고 있으며, 11~24명인 중형 평수는 평균 2.1365명(표준편차 0.8902)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패턴 차별성을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 주택 평형별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패턴 차별성 검정

인터넷 이용자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가정	13.65	.000	-8.529	498	.000
이분산 가정			-8.463	466.164	.000

동분산 검정 결과 $p=0.000 < \alpha=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산 가정에 따라 t 값 -8.463 에 자유도 466.164 에서 $p=0.000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7~12명인 소형 평수와 11~24명인 중형 평수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패턴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3)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에서 7~12명인 소형 평수는 평균 6만 394원(표준편차 65,164)을 지출하고 있으며, 11~24명인 중형 평수는 평균 10만 1,423원(표준편차 74,263)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 차별성을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9〉 주택 평형별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 패턴 차별성 검정

이용요금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가정	0.98	.323	-6.221	498	.000
이분산 가정			-6.321	454.713	.000

동분산 검정 결과 $p = 0.323 > \alpha = 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수락하고, 대립가설 H_1 을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동분산 가정에 따라 t 값 -6.221 에 자유도 498에서 $p = 0.000 < \alpha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7~12평인 소형 평수와 11~24평인인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4) 방송 부문 가설 검정

방송 부문은 (1) TV 보유 대수, (2) 위성방송 가입 여부, (3) CA TV가입 여부로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의 차별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1) TV 보유 대수

TV 보유 대수에서 7~12평인 소형 평수는 평균 1.0306대(표준편차 0.3297)를 보유하고 있으며, 11~24평인 중형 평수는 평균 1.1919대(표준편차 0.49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TV 보유 대수 패턴 차별성을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0〉 주택 평형별 TV 보유 대수 패턴 차별성 검정

TV 대수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동분산 가정	63.27	.000	-4.209	498	.0000
이분산 가정			-4.347	473.598	.0000

동분산 검정 결과 $p = 0.000 < \alpha = 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산 가정에 따라 t 값 -4.347 에 자유도 498에서 $p = 0.0000 < \alpha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7~12평인 소형 평수와 11~24평인인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TV 보유 대수 패턴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2) 위성방송 가입 여부

위성방송 가입 여부에서 7~12평인 소형 평수는 평균 0.2140가구(표준편차 0.4110)가 이용하고 있으며, 11~24평인 중형 평수는 평균 0.2519가구(표준편차 0.4349)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위성방송 가입 여부 패턴 차별성을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1〉 주택 평형별 위성방송 가입 여부 패턴 차별성 검정

위성방송 가입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동분산 가정	4.012	.046	-0.994	498	.321
이분산 가정			-0.999	491.192	.318

동분산 검정 결과 $p = 0.046 < \alpha = 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산 가정에 따라 t 값 -0.999 에 자유도 491.192에서 $p = 0.318 > \alpha = 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수락하고, 대립가설 H_1 을 기각하고 있다. 즉, 7~12평인 소형 평수와 11~24평인인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위성방송 가입 여부 패턴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CA TV 가입 여부

CA TV 가입 여부에서 7~12평인 소형 평수는 평균 0.4079가구(표준편차 0.4925)가 가입하고 있으며, 11~24평인 중형 평수는 평균 0.5736가구(표준편차 0.4955)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CA TV 가입 여부 차별성을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2〉 주택 평형별 CA TV 가입 여부 패턴 차별성 검정

CA TV 가입여부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동분산 가정	0.693	.406	-3.712	498	.000
이분산 가정			-3.714	480.910	.000

동분산 검정 결과 $p=0.406 > \alpha=0.050$ 이므로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 H_0 를 수락하고, 대립가설 H_1 을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동분산 가정에 따라 t 값 -3.712 에 자유도 498에서 $p=0.000 < \alpha=0.050$ 이므로 귀무가설 H_0 를 기각하고, 대립가설 H_1 을 수락하고 있다. 즉, 7~12평인 소형 평수와 11~24평인인 중형 평수 거주자들의 CA TV 가입 여부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2. 정보화 이용 패턴 검정 결과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 정보화 이용 패턴 차별성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3〉에서와 같이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에 차별성을 검정한 결과 컴퓨터 부문과 인터넷부문에서는 모든 요인이 소형인 영구임대주택과 중형인 국민임대주택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며, 통신과 방송부분은 각각 전화가입대수와 위성방송이용부분에서만 제외하고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여기서 12개 검정변수 중에 10개의 검정변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변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12개 변수를 기준으로 보면 검정변수 83%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7%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¹²⁾

이상에서 소득 분배의 양극화 현상은 도농간 양극화, 학력별 양극화, 기업 규모별 양극화, 소득계층별로 해를 거듭할수록 양극화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주택의 평형별 거주형태에 따라서도 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정보화 이용 양상까지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 방법으로 검정되었다는 것을 매우 시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화 이용의 주택평형별 양극화 현상을 좀혀줄 수 있는 법률적 및 정책적 대안 등이 다각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3〉 주택 평형별 거주자들 정보화 이용 패턴 차별성 검정 결과 요약

구분	요인 변수	정보화 이용 패턴 검정 결과
컴퓨터	PC 보유 대수	상이함
	노트북 보유 대수	상이함
	컴퓨터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수	상이함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여부	상이함
	인터넷 이용 가구원 수	상이함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	상이함
통신	전화 가입 대수	동일함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상이함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	상이함
방송	TV 보유 대수	상이함
	위성 방송 가입 여부	동일함
	CA TV 가입 여부	상이함

12)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검정변수는 변량의 단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3개 혹은 4개로 통합해서 검정할 수는 없었음

3. 정책대안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개연성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 영국의 경우 초기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도시의 빈곤 섬” 혹은 “빈민의 격리 수용”이라는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후 영국 정부는 공공주택의 단지화를 지양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단독주택, 혹은 연립주택 형태로 사회계층간 혼합 형태를 추구해 왔다¹³⁾.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주민들의 특성을 살린 커뮤니티 활성화는 물론 새터민들의 경제 및 자활 교육, 취업알선, 입주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장례지원 등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복지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해당 관리소를 중심으로 주민특성에 맞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 양극화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 및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제언

이 논문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용면적 7평~12평대 영구임대주택과 전용면적 11평~24평 국민임대주택 간의 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에 차별성을 검정해 보고자 하였다.

정보화 분야는 크게 국가정보화수준평가 항목 기준 컴퓨터부문, 인터넷부문, 통신부문 그리고 방송부문으로 설정하였으며, 검정결과 주택평형별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 패턴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도농간 양극화, 학력별 양극화, 기업 규모별 양극화, 소득계층별 뿐만 아니라 주택평형별로도 소득분배를 뿐만 아니라 정보화 이용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화 이용의 주택평형별 양극화 현상을 좁혀줄 수 있는 법률적 및 정책적 대안 등이 다각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사회적인 배제가 문제되고 있다. 영국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도 “도시의 빈곤 섬” 혹은 “빈민의 격리 수용”이라는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 양극화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주택관리공단은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활성화 활동은 물론,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여러 주거복지관련 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화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연계하여 입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 중고컴퓨터 나누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비용 및 각종 제도보완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관리비가 큰 평수가 많이 나오듯이 당연히 정보화 이용혜택도 큰 평수가 크게 나올 수도 있으며, 그렇다고 정보화 인프라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정보수단을 반드시 많이 활용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7~12평이며,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1~24평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25평 이상 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정보화 이용패턴까지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평수가 겹치는 11~12평의 설명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13) 하성규외,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3호 2006.

참고 문헌

1. 김신표, 고종문, "지역별 주택가격 결정요인분석을 통한 정책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 57~73면.
2. 김신표, 이준열, "ASP 산업의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2005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5, 509~522면.
3. 박용환, "주택공급관리의 주택정책적 접근, 주택연구 제12권 2호, 2004.
4. 이동성, "특집: 주택의 미래-미래주택의 모습들: 우리나라 주택의 현재와 미래", 0703건축, 1997.3.
5. 하성규외,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3호 2006.
6.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 백서, 2006.참조
7. Burchardt, T., J. Le Grand and D. Piachau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33 No.3, 1999, pp.227~244.
8. Room, G., "Social Exclusion: Solidarity and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Social Policy Papers, No.27, Bath, University of Bath, 1999.
- 참고 문헌
1. 강두용 · 이원복 · 변창욱 · 박중구, "지방자치단체별 제조업의 기술개발 구조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2.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2001~2005)」, 2000. 8
3. 박준경외, 「중장기 지역산업 발전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001.
4. 산업연구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 개선방안」, 2002. 8
5. _____, "기술혁신 추진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결과", 2004. 10
6. 삼성경제연구소, "중소기업 활로 모색을 위한 긴급제언", 2003.
7. 송위진 · 홍성만 · 김병윤, "사용자 참여형 기술혁신모델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8. 엄미정, 「기업규모별 기술형산활동 실태분석」, 2004.
9. 이재익,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의 모색」,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11
1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 2005 외
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제도」, 2004.
12. 홍지승,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혁신 실태와 시사점-한국 · 일본 · 독일의 혁신실태 조사 결과", 산업경제정보, 제269호, 2005.
13. _____,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2.
14. _____,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분석, 산업경제분석, 2005.
15. Antonelli, C., Collective Knowledge Communication and Innovation: the evidence of Technological Districts, Regional Studies, 2000.
16. Boer, F. Peter, The Valuation of Technology, John Wiley & Sons, Inc., 1999.
17. Camagni, R. P., Innovation networks : spatial perspectives, London: Belhaven, 1991.
18. Cowan R., and G. Paal, Innovation Policy in a knowledge-based economy, EC suggestions from an empirical study, Int. J. Technology Management, Vol 15, 2000.
19. Roy Rothwell and Mark Dodgson, "Innovation and Size of Firm", The Handbook of Industrial Innovation, 1994.

부록 1 : 주민들의 정보이용 현황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관리공단의 조사원 000입니다.

저희는 금번에 가구별 정보 이용 현황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생님의 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정보 이용 현황 분석 자료로만 제공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5월

조 사 기 관 : 주택관리공단 / 조 사 답 당 자 : 김 신 표(02-532-6445), 팩스 02-532-6401, 이메일 주소 spkim@kitria.or.kr

문1. 귀댁의 주택 소유 형태는?

- ① 소유 ② 전세 ③ 월세 ④ 전세+월세

문2. 귀댁의 주택 평형은?

- ① 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 11~12평)
②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1~24평)

문3. 귀댁의 관한 사항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본인	만 세			만원
본인	만 세			만원
본인	만 세			만원
본인	만 세			만원
본인	만 세			만원

*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칸을 늘여서 기입해주시시오.

문4. 컴퓨터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문	답변	
컴퓨터	PC 보유 대수	대	
	노트북 보유 대수	대	
	컴퓨터 및 노트북 이용 가구원수	명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인터넷 이용 가구원 수	명	
	이메일 이용 가구원 수	명	
통신	전화 가입 대수	대	
	휴대폰 가입 가구원 수	명	
	가구원 전체 휴대폰 이용 요금	원	
방송	TV 보유 대수		
	대위성 방송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CA TV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칸을 늘여서 기입해주시시오.

- 작성자 성 명 :
■ 작성자 전화번호 :